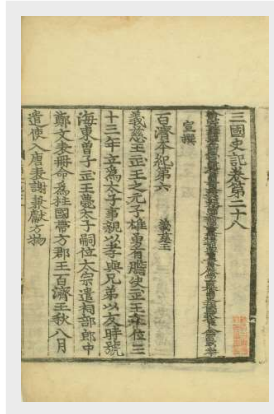


# 의자왕[義慈王]

## 700년 백제 역사의 막이 내리다

미상 ~ 660년(의자왕 20)



삼국사기 의자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 1 개요

의자왕(義慈王)은 백제의 제31대 왕이자 마지막 왕으로 재위 기간은 641년~660년이다. 집권 후 15년까지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정국을 이끌었다.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당과 거리를 두면서,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나 집권 15년을 지나면서 여색과 향락에 빠져 충신을 멀리하고, 대외관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면서 망국의 왕으로 기억되었다.

### 2 의자왕의 가계와 즉위과정

의자왕의 성은 부여(扶餘), 이름은 의자(義慈)이다. 제30대 무왕(武王)의 장자로 태어났다. 어머니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서동설화와 미륵사 사리봉안기의 기록을 통해 선화공주 혹은 사택적덕의 딸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다. 왕비에 대한 기록 역시 전하지 않는다. 다만 657년(의자왕 17)에 왕의 서자 41명에게 좌평을 제수하고 식읍을 내렸다고 하므로,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식으로는 태자로 책봉되었던 융(隆)과 효(孝), 그리고 태(泰)·연(演)·풍(豐)·궁(躬)·충승(忠勝)·충지(忠志)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641년(무왕 42) 무왕이 죽자 왕위에 올라 660년(의자왕 20)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20년간 백제를 통치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시호는 없다.

선왕인 무왕은 재위 기간 내내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무왕은 집권 후반기인 632년(무왕 33)에 만아들인 의자를 태자에 책봉했다. 왕위계승에 대한 귀족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후계구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의자왕은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즉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의자왕이 태자에 책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무왕의 장자라는 정통성에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자신의 능력과 자질도 무시할 수 없다. 즉위 이전 의자왕은 아버지를 효도로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 당시 사람들이 해동증자(海東曾子)라고 일컬을 정도였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효로 유명한 사람이다. 의자가 효와 우애를 중시했다는 것은 왕위계승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반발을 막고 왕족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자는 왕족과 귀족들, 나아가 백성들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